

전주덕진공원, 중·장기 확장 본격 추진

1단계 기반 정비 완료... 열린광장·창포원 조성 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성과로 이용 공간 확대

전주시에 도심 속 대표 호수공원인 덕진공원을 시민들이 더 넓고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주요 기반 정비를 완료한 데 이어 중·장기 확장계획을 시작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추진해 △열린광장 △창포원 조성을 포함한 총 10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정비사업과 병행해 중·장기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마무리된 사업은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1단계 사업으로, 열린광장 조성까지를 포함한 주요 기반 정비를 담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마무리된 열린광장 및 창포원 조성은 덕진공원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열린 광장은 상징적 진입 공간이자 민남의 장으로, 창포원은 전통 친수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덕진공원의 기본 기능을 더욱 강화하



전주시에 도심 속 대표 호수공원인 덕진공원을 시민들이 더 넓고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주요 기반 정비를 완료한 데 이어 중·장기 확장계획을 시작기로 했다.

는 정비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공원 전반의 산책로 정비를 통해 보행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호수의 수질 개선 사업을 병행 추진해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풍림정도 전통정자가 자닌 맛을 살리는 방앗간 예정이다.

휴식 명소로 새롭게 정비기로 했다.

덕진공원 종합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원 이용 환경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원 서측의 현재 고물상 부지를 지난해 매입을 완료했으며, 해당부지를 활용한 주차타워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방문객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공원 이용 편의를 높

여나갈 계획이다.

덕진공원과 인접한 덕암마을 일대는 공원화 연계한 관광특화단지로 육성하고, 체험·문화·휴식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덕진공원과 덕암마을을 연계한 '덕진공원 단축 관광코스'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시는 공원과 마을을 잇는 보행 동선과 공간 구조를 정비하고, 저층·소규모 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음식과 차, 숙박 등 관광 관련 민간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통해 덕진공원을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공간이자 전주를 대표하는 호수공원으로 지속적으로 가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덕진공원은 단계적으로 변화해온 공간이며, 앞으로의 변화가 더욱 기대되는 곳"이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전주의 대표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치매, 올바른 이해·극복전략'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강연회 진행

전주시가 정신건강 으뜸도시 구현을 위해 지속해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1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효자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어르신 및 치매환자와 가족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극복전략'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승호 예코맑은하루신경과 의원 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진행된 강연회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서 전 원장은 △치매의 정의 및 주요증상 △진단방법과 치료 △조기진단의 중요성 △일상생활 속 치매 예방관리 방법 등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전 원장은 "치매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로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질환"이라며 "올바른 정보와 사회적 이해가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매는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강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 지난해 29억원 세원 추징

전주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을 구성·운영한 결과, 미신고·과소신고 등 탈루 세원 29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이 참여한 시·구 합동 조사단은 총 3개반 5개팀 34명으로 구성됐다.

합동조사단은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전부를 대상으로 탈루 취약 분야와 고유목적 미사용 사례 등을 중점 점검했다.

합동조사단은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직무연찬을 실시했다.

직무연찬을 통해 최신 세법 동향, 주요 관례, 유형별 숨은 세원 발굴 사례, 실무 중심 조사 기법 등을 공유하며 조사 역량을 강화했다.

조사 유형별 세원 발굴 실적은 △법인 정기조사 2억 6,800만 원 △간편 부동산 조사 10억 100만 원 △사태별 조사 6억 7,500만 원 △기획 조사 9억 6,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추징 사유는 △건축비용 차입금 이자 및 각종 부담금 등 건축 관련 비용을 은닉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법인 주식을 50% 초과해 취득하고도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관련 법령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 등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상병수당' 운영

운영 지원 계획 수립...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치료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소득 지원

전주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시민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상병수당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다.

시는 그간 제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난해만 총 857건, 9억8500여원을 상병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는 3단계 시범사업 운영 중인 4개 시·군(전주시, 원주시, 충주시, 홍성군) 가운데 가장 높은 42.8%의 지급률을 기록해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는 치료 기간 중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기 회복과 건강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된다.

시는 올해도 상병수당 운영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및 취약 노동계층 보호 △질병 악화 방지 및 조기 회복 지원 △지역 내 사회안정망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병수당 제도의 전문성과 현장성 강화를 위해 상병수당 지역협의체 위원을 추가 위촉해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확대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국승철 완산구청장, 건협 전북도회와 소통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국승철)는 21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를 방문하여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새해 인사와 함께 지역 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날 자리에서 국승철 완산구청장은 건설경기 동향과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제도 운영과 정에서의 개선 필요사항과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국승철 완산구청장은 "지역 건설업



계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인 만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재철 회장은 "완산구의 관심과 방문에 감사를 표한다"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이전 추진

전주시는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과 농번기 농기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인동 인근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신축 이전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북부권 농업인의 농기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소규모 차고를 임대해 운영했다.

그러나 시설이 협소하여 농업기계 보관과 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농번기에 집중되는 임대 수요 증가로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



인 농업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소 이전과 함께 신축을 결정했다.

이번에 신축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는 완산구 중인동에 총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657㎡ /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http://council.jinan.go.kr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제9대 진안군의회 |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